

War Room VI.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생각과 감정의 가지치기

[요한복음 15:1-2]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1. 응답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라 할 수 있겠다. 응답의 영적 원리는 '믿음'이다. 믿음의 영적 원리가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통로가 된다.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믿음의 출처는 '말씀'이다. 말씀은 내 생각에 기초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All Scripture is God-breathed)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믿음의 출처가 말씀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으로 되어있다. 즉,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가 된다. 말씀 앞에선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신앙은 결국 '태도'에 대한 것이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이 아니다.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순종'이며, '예와 아멘'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다.

*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매'이다. 열매는 보여지는 것이다. 응답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열매로 맺히게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정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존재적 고백). 믿음의 사고를 가로막는 내 생각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는 '미혹' 때문이다. 사탄의 미혹은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열매를 위한 가지치기

요한복음 15:1-2절의 말씀을 보라. 열매와 응답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하신다.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분명하다.
(예수님 - 참 포도나무 / 하나님 아버지 - 농부 / 사람 - 가지)

먼저 중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다.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겉모양으로 모른다. 진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의 겉모습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열매'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의 차이는 '응답'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자기 수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해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신 것이다. 열매 맺는 가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2]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말씀을 보면 명확하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신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들과 감정이 가지치기 되어야 한다. 가지치기가 없는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 가지치기

기억하라. 응답받는 기도, 열매 맺는 신앙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다. 가지치기가 없는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자양분을 빼앗기 때문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가지치기 없는 신앙은 ‘소모적, 낭비적’ 힘이 빠진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응답이 없다. 기쁨이 없다. 두렵다. 불안하다. 불신의 가지, 불안의 가지, 두려움의 가지, 걱정, 걱정의 가지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엄청나다. 집중할 수 없다. 마음 가운데 비전의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비전은 바람이다. 바람이 없기 때문에 실상이 되지 못한다.

3. 오해

가지치기는 심판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심판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단번에 있는 것이다. 가지치기는 그렇지 않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가지치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가지치기는 제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통해 성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기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농부에게 있어 필수 요소가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 가지치기에 대한 성도의 태도

(1) 인정 - 정직함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가지가 있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불안, 걱정, 하나님 보다 우선으로 신봉하는 이념과 세계관 등의 가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 내 안에 그런 가지가 있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다. 내면의 상태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아프고 연약한 영역에 대한 정직함이 있어야 가지치기가 된다. 우선으로 감추면 안 된다.

(2) 내어드린다.

인정했다면, 내가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여 제거하시는 농부가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드려야 한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가지치기가 무엇인지 압니다. 육신의 가지로 인해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3) 날마다 제거하라.

무슨 말인가? 불필요한 가지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둔 믿음이 필요하다. 그 십자가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의 가지가 날마다 제거되어야, 풍성한 지성소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의 가지치기를 명심하라. 가만히 두면 계속 자라난다. 자라나서 다른 가지에게 영향을 준다. 나중에 제거할 때 배의 에너지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작은 구멍을 조심해야 한다. 포도밭 전체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를 집중해야 할 때이다. 날마다 가지치기가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 다음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지치기를 구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 안에 작은 틈을 주지 마라.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생각과 감정 안에 가지치기 있어야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된다. 내면의 거침과 저항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영의 기도가 열리게 된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안에서 그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 내면 안에 거침과 저항이 없기까지 기도해야 한다. 바로 그때 가지치기 되는 순간이다.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원하는가?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가정, 공동체 등)